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3. 6. 5(수) 11: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관계부처 담당자는 <별첨(28페이지)> 참조	

창조경제가 열어가는 희망의 새 시대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을 창조경제의 주인공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하여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 정부는 ‘13.6.4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확정하였다.

계획수립의 배경 및 경과

◎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지난 40여년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으며,
 - 고용 없는 성장 지속,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증대되고 있다.
- 세계경제는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산업경제), 지식·정보(지식경제)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창조경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 스마트폰, SNS 등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에서 혁신적 시장,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창출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 첨단기술, 문화, 예술 등 각국의 강점에 기반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 하면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 하기 위하여
 -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한 것으로 지난 3월말부터 부처 합동으로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벤처기업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으로부터 과제를 제안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계획에 반영하였다.

◎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 제시

- 이번에 수립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와,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전략 1),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전략 2),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전략 3),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전략 4),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전략 5),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전략 6) 등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전략별로는 3~5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붙임 3 :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추진과제

☞ 6대 전략 중 '전략 1' 및 '전략 2'의 주요 내용은 지난 5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먼저 발표(「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하여 아래에서는 추가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1.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
- 상상력·창의성과 기술이 쉽게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창업 소과정 지원
- 지식재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성실 실패가 용인되고,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1] 용자가 아닌 투자로 손쉽게 창업·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용자풀(pool)을 줄이고 투자풀(pool)을 늘려 창업기업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으며, 성실실패의 경우 재도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세부내용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5.15)

- ◇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용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
 - 엔젤투자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미래창조펀드(5,000억원) 조성 등
- ◇ 벤처·창업 생태계 인프라 확충
 - 창업 플랫폼 다양화, 멘토링 강화, 재도전 환경개선 등

- 1인 창조기업은 시설·경영·R&D 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대학·출연(연)은 창업 요람*으로 거듭난다.

* 휴·겸직 대상 및 휴·겸직 사유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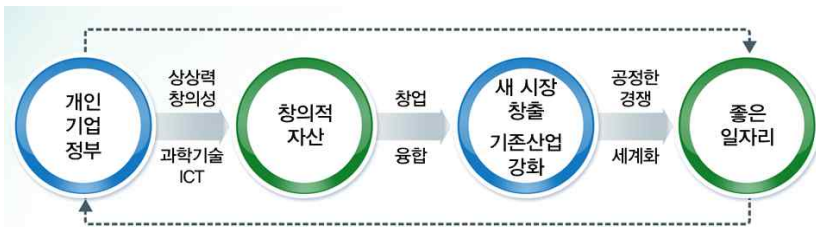
2] 창의적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로

-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로부터 시장성이 큰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고, R&D와 표준, 특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확산·중개시스템을 구축한다.

창조경제의 개념

- ◇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

창조경제 생태계



- (1) 다양한 개인,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소통하면서 과학기술·ICT와 융합되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 자산(기술과 지식)을 창출
- (2) 창의적 자산이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3)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며 세계로 진출하고, 다양하고 많은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생성

-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13년 특허 투자펀드 2,000억원 조성)
- 한편,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적 인센티브(예 : 정부 사업 우선 지원 등)를 받을 수 있게 되고,
 -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애로상담, 법률지원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 초기 판로개척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첫번째 고객'이 되어 공공수요 창출
- ◎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외 인프라 확충 및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협력사업 확대 등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 중소기업 인력 수요조사-교육-채용 체계인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1. 정부와 공공기관이 '첫번째 고객'이 되어 판로개척 지원

- 뛰어난 기술력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 벤처·중소기업 일지라도 홍보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초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이제 제품으로 승부하는 기술 중심 중소기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공공수요를 통해 초기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 먼저, IT 융합제품 및 부품·소재 등 미래유망산업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 공공조달로 구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홍보도 할 수 있게 된다.

2.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 주식시장(코스닥, 코넥스 등), M&A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 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나, 기업들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세부내용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5.15)

- ◇ 중기 전용 코넥스 개설, 코스닥 상장·관리 제도개선, M&A 관련 세제감면 등
- ◇ 성장사다리펀드, 우체국 금융자금 활용 벤처 투자, M&A 관련 펀드 등

3. 창업도 성장도 세계시장을 목표로 추진

-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시작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게,
 - 글로벌 창업, 성장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진출이 유망한 스타트업들은 국내 거점 인프라(글로벌창업지원센터 등)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진단받고,
 - 빠른 기간 내에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인프라 및 네트워크 등과 연계된 현지화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실리콘밸리, 중국 등 전략적 수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외IT지원센터(13년 3개소), 코리아벤처창업센터(13년 1개소), 재외공관(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 동남아 등 개도국 진출 시에는 우리 정부의 대외 IT 지원(국제 IT 협력센터, 정보접근센터 등)사업을 통해 형성된 親韓·知韓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해외진출 비용 절감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대·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문화를 확산 시켜나갈 계획이다.

* 성과공유제 : 대기업(위탁)과 중소기업(수탁)이 사전계약을 통해 추진목표 및 성과공유에 합의 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계약에 따라 성과를 공유(현금보상, 장기계약, 공동특허 등)하는 제도

- 특히, 납품단가 부담인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 절감형 공동협력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글로벌 가격경쟁력 확보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

5.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요·교육·채용 연계체제 구축

- 벤처·중소기업 관련 단체, 지자체, 교육·훈련기관(특성화고, 전문대 등),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 인력난을 겪고 있는 벤처·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조사하고, 교육하여, 취업과 연계시켜주는 '인력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과학기술과 ICT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 창의적 콘텐츠 제작·창업 지원을 위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
- 국민행복 사회실현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및 “C-Korea” 프로젝트 추진
- BT·NT·ET 및 우주·원자력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 범정부·민간 공동으로 산업융합 및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추진

1.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기존산업에 활기 불어넣기

- 창조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하여 기계·제조 등 성장한계에 부딪힌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축수산업, 전통시장 등 전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① 주력산업은 IT융합혁신센터 및 민관 공동 차세대 소재·부품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② 낙후된 전통산업은 IT 기반의 축사관리시스템 확대, 에너지 절감형 그린하우스 개발, 전통시장의 스마트폰 간편결제 확대 등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 저에너지/고생산 농업 시스템 구축 및 농촌 고령화/인구감소에 따른 경작 자동화

③ 또한, 정부가 앞장서 LTE기반 지능형 철도시스템, 스마트 자율주행 도로 등 국토·산업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에 바탕한 **범정부 프로젝트**

※ 단백질 등 생존에 필수성분은 아니나, 없으면 활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흡수하여야만 하는 **비타민**의 특성을 과학기술과 ICT 접목의 상징으로 명명

□ (추진전략)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각 분야별로 ① 해당 산업의 활력 및 경쟁력 제고 ② 국민 편의 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추진

분 야	주요 과제(예시)
비타민 A(농업)	○ 농작물/축산물 생육 관리 (센서, 빅데이터)
비타민 C(문화)	○ 관광·문화·지역 정보 연계 서비스 (QR코드, 증강현실, 3D 영상)
비타민 F(식품)	○ 사물지능통신 기반의 식품유통이력 및 식품안전관리(RFID, 스마트 단말, 앱)
비타민 I(인프라)	○ LTE 기반 지능형 철도, 스마트 자율주행 도로, 한국형 GPS 위성항법 등
비타민 S(안전)	○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사고, 재난경보 및 사회적 약자 보호(GPS, 센서, 앱)



② SW·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

○ 고급 SW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을 통해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충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터넷 신산업 분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① (SW) “21세기 언어인 SW”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SW융합기술개발, SW정책연구소 설립 등도 적극 추진한다.

* 손쉽게 SW를 습득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SW 창의캠프 개최 등

② (인터넷 신산업)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으로 새로운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교통, 위치정보 등 활용성이 높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③ (보안산업) 보안 전문인력을 ‘17년까지 5,000명 수준으로 양성하고, 모바일 보안 기술선점 등을 통해 “보안이 골칫거리인 나라에서 보안으로 먹고사는 나라”로 전환을 꾀한다.

*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발표 예정('13.6)

○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창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4,000억원 규모)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5대 킬러콘텐츠*와 디지털콘텐츠를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한다.

*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3 사람중심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 국민적·사회적 요구는 높으나 민간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힘든 분야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미래 사회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R&SD*를 추진한다.

*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

- ① **(사회문제 해결형)** 우선, 환경·복지·안전 등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이나 문제를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이전하여 신규 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한다.

- ② **(C-Korea)** 또한,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의 혁신** 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과 ICT, 문화제도 개선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C-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ICT Convergence, 기술/인문·사회 Connection, 정부/민간 Collaboration, 사회시스템 Conversion, 새로운 패러다임 Creation의 5C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함의

* (예시)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편 : 의료정보 표준화 및 공유 네트워크 구축, 의료정보 공유·활용 관련 법제도 마련, 동네-대형병원 간 협업의식 제고 등

4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

- **유전체 분석·치료기술, 그래핀 소자, CCS*** 등 바이오·의료, 나노, 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첨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 CO2 포집·저장·전환 기술

- **수출용 중형위성 및 신형원자로, 무인항공기 개발** 등 국가 대형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 **장기적인 미래예측**을 통해 **유망 신산업 및 비즈니스 분야를 발굴**하여 이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5 규제합리화를 통한 산업융합과 시장창출 촉진

- 산업 간 융합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과 수요를 적극 수렴하여 범부처 공동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앞서 '13.4월에 실시한 **7개 민간 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저작권 삼진 아웃제** 등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였으며, 이외에도 **위성+IPTV 융합서비스 규제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4.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 초등학교용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
-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확산하여 능력과 직무중심의 채용지원
-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공 벤처인**의 1:1 멘토링으로 도전정신, 기업가정신 고취
- ◎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유입을 위해 “**창업비자**” 도입

1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화

- 창의성·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선한다.
- 먼저, 초·중등생은 수학·과학·기술·공학·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탐구교육을 교과서를 통해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 *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13년 28종→'17년 35종)하여 교과서에 반영('13년 초등학교 1, 2학년→'15년 초등학교 5, 6학년)
- 대학생들은 확충된 융합 과정 및 융합 학과(대학원)*를 통해 자기 자신의 전공외에 타분야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 * 웰빙, 문화예술 등 유망사업 분야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원('13년 3개) 확대 및 융합형 디자인 대학('13년 14개) 확대
- 또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확산하여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하게 된다.
 - * 학력·스펙 이외의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인재를 선발, 전문가 멘토링 후 취업을 지원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 설립('13.6월)

2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다시 살리기

- 방과 후 특별활동, 주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진로체험, 모의 창업 대회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창업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 대학생 등의 창업동아리 지원도 확대한다.
- 또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공한 벤처인들이 학교로 찾아가 자신의 창업도전 사례 등을 소개하고, 1:1 멘토링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 벤처기업협회가 운영하는 “YES리더 기업가정신 특강 : 성공한 중소·벤처기업의 대표로 구성된 600여명의 리더가 학교로 찾아가 자신의 창업도전 사례, 기업경영철학 등에 대해 강연

3 창의인재 해외진출 및 국내유입 활성화

- 글로벌 무대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은 새로 구축되는 ‘K-Move 포털’*과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해외 산업현장의 실무경험과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게 된다.
 - * KOTRA, 韓商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는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제공/ ** '13년 7개 부처(교육·산업·여가·농식품·문체·국토부 및 중기청) 주관 13개 세부사업으로 2,620명 파견
- 또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도 새로 생기는 ‘(가칭) 창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보다 원활히 창업을 할 수 있게 되고,
 - 주거, 의료, 교육 등 해외인재의 정주여건도 개선하여 '17년까지 세계 TOP 1% 연구자 300명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 확대”(‘13년 36%→'17년 40%)
- ◎ 연구기관의 “서랍속 특허를 기업에 무상 제공”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 “Giga급 유·무선 네트워크” 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구축
- ◎ 산·학·연·지역협력으로 창업교육, 기술사업화, 벤처창업 지원 강화
- ◎ 우리 과학기술로 환경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개도국에 “과학기술혁신센터” 설치

1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 정부 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창의적인 젊은 연구자들에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을 시범 추진('13.하)한다.
 - 기초·원천연구의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국형 Grant 제도’와 도전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성실실패 시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설계와 인큐베이팅 R&D,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가 추진(‘13.하)되며,
- **중소·중견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은** 기술박람회 ‘R&D 비즈 파트너링’ 등을 통해 **대학·출연(연)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2 ICT 혁신역량 강화로 차세대 시장 선도

- 5G 이동통신, 실감미디어 등 **C-P-N-D 분야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개발**하고, 해외시장을 목표로 **10Gbps 인터넷, 차세대 Wi-Fi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을 육성**한다.
- 3D, UHD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방송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한 **신규 주파수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년까지 1GHz폭이상의 주파수 공급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학, 출연(연)의 지역혁신·사업화 기능 강화

- 지자체의 기술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기술 기획·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

* (예시) 환경산업 실증화단지(환경부), 글로벌 수산물류 허브단지(해수부), 식품클러스터(농식품부), 항공레저 클러스터(국토부), 산업단지 클러스터(산업부) 등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창업지원펀드(Sci-Biz 펀드, 연구개발특구펀드)와 연계한 기술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과기특성화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 등 대학의 **지역혁신 촉진자 역할이 강화**되고,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기술 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보강**한다.

4 우리의 과학기술·ICT로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위상 제고

- 주요 개도국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13년 1개)하여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창업**을 연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개도국 **질병해결, 빈곤 극복, 황폐지 복구** 등을 위해 **신약개발연구, 농업·산림녹화·수산기술** 등 **보급을 확대**한다.

6.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 “**상상-도전-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창조경제 박람회,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 추진
- 아이디어의 “**제안-공유-실현**”을 위한 **무한상상실** 설치,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 대한민국 창조경제 소통의 문, “**창조경제 종합포털(가칭 Creative Korea)**” 구축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가진 모든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행정기관 간 **자료유통, 영상회의** 등이 자유로운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1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

- 좋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제안·소통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도 만든다.
- 금년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이 **도전·개방의 문화와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게 하고,
-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을 통해 일반인도 우수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국 과학관, 우체국, 도서관 등에 “**무한상상실**”을 설치(‘13.7월)한다.
- 금년에 우선 5개소를 시범운영 한 후, ‘1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확산시킬 예정으로,
- 무한상상실에서는 청소년, 주부 등 누구나 방문하여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고,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누구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발히 제안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사업화 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창조경제 종합포털(가칭 Creative Korea)”이 구축(13.5월)·운영되어,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창조경제를 접하고, 자신의 상상력·아이디어가 사업화·창업까지 전주기적인 과정에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정부3.0을 통한 공공자원과 국민의 아이디어 융합

- 민간에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학술자료, 버스운행 정보 등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능한 한 모두 개방할 방침이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공공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금년 하반기 중에 제정을 추진한다.

▪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창출 사례 :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서울버스’ 서비스, 지역별 날씨정보, 주간 예보 등을 제공하는 ‘케이웨더’ 등

- 또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온라인 민-관 협업공간, 국민행복 제안센터 등 신설·확대되는 민-관 소통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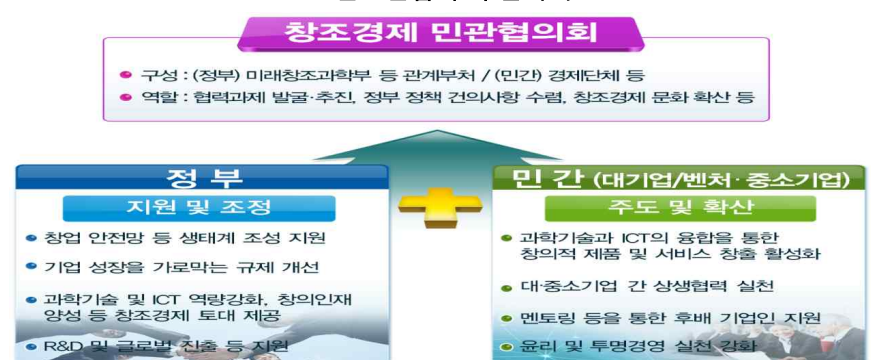
- 또한, 행정기관 간 자료유통, 영상회의 등을 통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14년)하고,
 - 정부통합센터를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하고, 빅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센터’를 설립(15년)한다.

창조경제 추진체계

◎ 정부보다는 민간이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상시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정부(미래부 등)와 민간 경제단체간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 이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되는 등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가 마련된다.

< 민·관협력 추진체계 >



향후 추진일정

- 본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라 **추진과제별로 세부계획이 차례로 수립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 6월에는 「SW혁신 기본계획」(미래부),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미래부, 문체부 등),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중기청 등), 「산업 부문 창조경제 전략」(산업부) 등이,
- 7월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미래부),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교육부),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 개선 종합대책」(산업부 등),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특허청) 등이,
- 8월이후에는 「SW클러스터 추진 방안」(미래부),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외교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미래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붙임1

국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창조경제

-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주인공이 된다.
 -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패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 청년, 대한민국의 실리콘 벨리를 꿈꾼다.
 -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가능성으로 몽친 청년들이 대학과 사회 내 마련된 창업공간을 통해 한국의 실리콘벨리를 만들어간다.
- 중소·벤처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한다.
 -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와 건강한 시장경제를 토대로 중소·벤처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생산하는 창조경제의 주역이 된다.
- 대기업은 창조경제의 선도자로서 세계시장을 선도한다.
 - 세계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 대규모의 일자리제공, 중소기업 생산성·기술력 향상 지원,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메이드 인 코리아' 시장을 선도한다.
- 출연연구기관은 창조경제의 견인차로서 중소기업의 지원자가 된다.
 - 신약개발, 줄기세포, 뇌과학, 나노소재, 원자력, 온실가스 저감 기술, 우주 기술, IT-BT-NT-ET 기술 간 융합 등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기술을 앞장서 개발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에 적극 나선다.
-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조력자로서 신산업 창출을 적극 돕는다.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정부-국민-기업 간 협력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부 3.0을 통해 공공자료를 민간에 개방,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기회를 제공한다.

붙임2

창조경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창조경제로 실현되는 우리경제의 미래상]

1 우리 경제 전반의 변화

구분	현재	미래
성장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
성장과 복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과 고용·복지의 조화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HW/제조업, 대기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서비스, 벤처·중소기업과의 균형과 상생

2 창조경제를 통한 5대 변화

①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창업국가 대한민국」이 실현됩니다.

주체/대상	주요 투입/산출 지표(예시)
벤처·중소기업	<p>벤처·중소기업이 투자받을 수 있는 펀드가 늘어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규모('13년 하반기)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규모('13년)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 규모('13년) 등
	<p>「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보증제도가 마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신설: 500억원('13년) ※ 5억원 한도 100% 보증 기술·산업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 3,000억원('13년) 「M&A 보증」 신규 도입: 1,000억원('13년)

주체/대상	주요 투입/산출 지표(예시)									
대학, 출연(연)	<p>대학과 출연(연)이 창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12) 117개 → ('17) 400개 연구소 기업 및 대학기업과의 공동연구법인설립 확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2년</th> <th>'17년(목표)</th> </tr> </thead> <tbody> <tr> <td>· 공동연구법인</td> <td>2개</td> <td>20개</td> </tr> <tr> <td>· 출연(연) 연구소기업</td> <td>24개</td> <td>70개</td> </tr> </tbody> </table>	구분	'12년	'17년(목표)	· 공동연구법인	2개	20개	· 출연(연) 연구소기업	24개	70개
	구분	'12년	'17년(목표)							
· 공동연구법인	2개	20개								
· 출연(연) 연구소기업	24개	70개								
일반국민	<p>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한상상실 설치·운영: ('13) 5개소 시범운영 → ('17) 전국 사군구로 확대 유도 무한상상 창업 프로젝트: ('13, 시범) 30~40개 → ('14~, 연중상시) 100개 									
	<p>벤처·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이 용이해 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13) 35개팀, 향후 5년간 총 300개팀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챔프: ('12) 70개사 → ('17) 200개사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12) 116개사 → ('17) 300개사 									
벤처·중소기업	<p>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현행) 6개월 720만원 → (개선) 6개월 900만원 연대보증제도 폐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 「재기자금」 확대: ('13) 400억원 → ('17) 1,000억원 									
	<p>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높아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R&D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를 '17년까지 단계별로 확대(중소기업 R&D 예산 비중) ('12) 13.6% → ('15) 16.5% → ('17) 18.0% 출연금 주요사업비 대비 중소기업협력사업비 비중 ('12) 약 7% → ('17) 15% 									
	<p>대·중소기업이 손잡고 나아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을 중견(중소)기업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 2·3차 협력사 비중 ('13) 20% → ('15) 40% → ('17) 50% 									

② S/W콘텐츠 산업 대국이 되고, 기초과학 육성과 '창조경제 비타민'으로 신성장동력이 창출되어 경제 활력이 살아납니다.

주체/대상	주요 투입/산출 지표(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콘텐츠 기업 연구소 등 	<p>SW·콘텐츠 분야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W 제값주기로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 '17년까지 4,000억원 규모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국민 	<p>과학기술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MRI 기반 60~80대 '한국인 표준 치매 뇌지도' 작성(~'17)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발굴·추진 : '17년까지 10개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계, 연구소, 대학 등 	<p>과학기술·ICT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만들어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 발굴·추진 : '13년 15개 내외 '17년까지 기술기반 대응합을 통한 신수요·신산업 창출 유망 과제 10개 발굴·지원

③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가 육성되고,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됩니다.

주체/대상	주요 투입/산출 지표(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생 	<p>대학생이 융합인재로 거듭나고, 창업을 선도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합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KAIST : IT기반 융합 교과 추가(37개→40개) GIST : 교양 융합 교과 추가(6개→10개) 특성화 전문대 집중 지원 : ('14) 78개교→('15) 86개교→('16) 90개교→('17) 100개교 대학 창업교육센터 확대 : ('13) 61개 → ('14) 10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청년 	<p>스펙이 아닌 능력이 채용의 기준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직종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 ('12) 331개 → ('14) 833개 직무역량평가 직군 개발 수(누적) ('12) 3개 → ('13) 6개 → ('17) 2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취업·창업 희망 학생·청년 	<p>이젠 해외가 청년의 일터가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K-Move Center 구축운영 : '13년 3개 유망지역에 구축하여 단계적 권역 확대 워킹홀리데이 확대 : ('13) 16개국 → ('17) 2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재 	<p>여성이 창조경제의 핵심인력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재 아카데미 : ('13. 6월) 설치, '13년 2천명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우수 연구자 	<p>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세계적 과학자가 모여듭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년까지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유치

④ R&D 투자가 사업화로 연결되고, 산·학·연·지역 협력이 강화되어 출연(연)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됩니다.

주체/대상	주요 투입/산출 지표(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연구소, 기업 등 	<p>기초·원천기술 투자확대로 기술사업화의 씨앗을 뿌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 : ('13) 36% → ('15) 38% → ('17) 40% 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 일정비율 투자 : ('14) 사업별 예산의 10% 내외 활용 → ('17) 20%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중소기업 출연(연) 등 	<p>연구소 서랍 속 기술로 사업화를 지원하고, 출연(연)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성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와 기술보증기금 연계 : ('13) 36억원 → ('14) 180억원 내외 연구개발특구펀드 1,250억원 조성(~'14, '18년까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소기업 : ('12) 40개 → ('17) 75개 첨단기술기업 : ('12) 103개 → ('17) 150개

⑤ 정부 3.0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현되고, 공공정보 개방으로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됩니다.

주체/대상	주요 투입/산출 지표(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국민 벤처·중소기업 	<p>공공기관의 데이터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만나 비즈니스 창출로 연결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자료 등 원문정보 : ('13) 80만건 → ('15) 150만건 → ('17) 200만건 버스운행정보 등 실시간정보 : ('13) 60종 → ('15) 120종 → ('17) 150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등 	<p>과학적 국정운영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이 높아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통합전산센터 60%(전체 1,233개 중약 740개)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 '15년 구축·운영

붙임3 사례로 보는 창조경제 : 창조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1. 창의적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술을 만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창출

- ◎ A업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기존 보다 저렴하고, 빠른 결과 분석으로 실시간 시장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설문조사 서비스 창출
- ◎ B업체는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이 '의지 부족'이라는 점에 착안, 자신과 비슷한 체형과 다이어트 목표를 가진 상대와 앱을 통해 1대1, 다대다 대결을 펼치는 '소셜 다이어트 서비스'를 개발, 맞춤형 해법을 제공하고, 건강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헬스케어 모델 창출
- ◎ C업체는 앱을 실행시키고 걸을 때 마다 기부금을 적립하여 의족을 선물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서비스를 출시하여, 후원기업에게는 광고 효과와 사회적 공헌의 기회를 주고, 앱 사용자에게는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신개념 기부 서비스 창출

2.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을 만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

- ◎ 국내 D대학 학생들이 학교의 창업 지원을 통해 기존 과학기술(센싱+3D그래픽+가상현실)과 '실내에서도 필드와 같은 라운딩 환경 제공'이라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스크린 골프 산업을 창출
- ◎ 국내 E대학 학생들은 거리의 쓰레기통의 내용물이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을 이용해 쓰레기를 압축하고, 일정량 이상이 되면 센서가 작동하여 수거차량이 올 것을 알려주는 '태양광 자동 압축 쓰레기통'을 개발, 국내 대학가에 설치하고 해외에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3.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에 스며들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

- ◎ 국내 조선사와 출연연, 대학은 공동연구를 통해 기존선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운항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운항경로를 설정하고,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스마트 선박'을 개발, 우리의 대표 산업인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가져옴
- ◎ 국내 와인제조사와 출연연은 공동 연구를 통해, 와인 양조용 포도의 재배에서 양조 및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단계에 ICT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와이너리시스템'을 개발, 와인 생산의 최적 환경을 제공하여 와인업계의 노벨상인 '파커포인트'에서 만점 획득

4. 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창출

- ◎ 국내 G대학 학생은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출력물 위·아래에 기업광고를 삽입하여 대학생들이 무료로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학생들의 인쇄물 출력비용을 절감
- ◎ H업체는 화장품 샘플을 업체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소비자가 매월 일정액을 결제하면, 다양한 샘플이 담긴 선물상자를 제공받는 '화장품 구독 서비스' 아이디어로, 기업에게는 마케팅 효과를, 소비자에게는 최신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윈윈전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 ◎ 평범한 주부였던 I사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품 필요성과 우리나라는 고사리나 시래기처럼 말리는 음식이 많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착안, 시행착오를 거쳐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 부가가치를 창출

5. 국내시장 중심의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관점 변화

- ◎ J업체의 경우 생체신호인 뇌파와 눈동자움직임 상호작용을 통한 사물을 컨트롤 하는 바이오피드백(생체자기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실리콘밸리에 기업을 설립하고 전세계 약 1,700여개의 기업과 기술협력을 추진중
- ◎ K업체는 유명 연예인 등의 SNS를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번역하여 외국 팬들에게 서비스 하는 앱을 출시,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인이 쓴 글을 게임하듯이 즐기고, 외국어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번역 서비스로 글로벌 한류 시장 개척에 기여

붙임4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1]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1-1)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추진과제 1-2) 손쉬운 창업 여건 조성

(추진과제 1-3) 아이디어·기술의 지식재산화 및 보호·활용 촉진

(추진과제 1-4)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 촉매기능 활성화

(추진과제 1-5) 제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전략 2]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추진과제 2-1) 벤처·중소기업의 성장발판 마련

(추진과제 2-2)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추진과제 2-3)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추진과제 2-4) 벤처·중소기업 인력난 등 애로사항 해소

[전략 3]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추진과제 3-1) 과학기술과 ICT융합으로 기존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추진과제 3-2) SW·인터넷 기반 신산업 및 고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

(추진과제 3-3) 사람중심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추진과제 3-4)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시장 개척

(추진과제 3-5) 규제합리화를 통한 산업융합 및 시장창출 촉진

[전략 4]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추진과제 4-1)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강화

(추진과제 4-2) 도전정신·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 확대

(추진과제 4-3) 창의인재의 해외진출 및 국내유입 활성화

[전략 5]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추진과제 5-1) 잠재력 확충과 사업화 강화를 위한 R&D 시스템 개선

(추진과제 5-2) 창조경제 가속화를 위한 ICT 혁신역량 강화

(추진과제 5-3) 일자리 창출 중심 산·학·연·지역 협력 강화

(추진과제 5-4)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ICT 역할 강화

[전략 6]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추진과제 6-1)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창의문화 조성

(추진과제 6-2) 정부3.0을 통한 공공자원과 국민의 아이디어 융합

(추진과제 6-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별첨

관계부처 담당자 연락처

부처	담당과	담당자
기재부	신성장전략과	과장 박금철, 사무관 최동일(☎ 044-215-4550, 4551)
미래부	창조경제기획담당관 미래성장기획팀	과장 이창희, 서기관 서경준(☎ 02-2110-2070, 2074) 팀장 홍성완, 사무관 박시정(☎ 02-2110-2071, 2075)
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김천홍, 사무관 박현정(☎ 02-2100-8623, 6053)
외교부	경제협력과	과장 이태원, 서기관 노원일(☎ 02-2100-7716, 7717)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권영범, 사무관 최상혁(☎ 02-2110-3111, 3022)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	과장 권영철, 소령 백준호(☎ 02-748-6510, 6513)
안행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하균, 사무관 김영석(☎ 02-2100-3272, 3274)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과장 황준석, 서기관 김현준(☎ 02-3704-9611, 9616)
농식품부	기획통계담당관	과장 윤동진, 사무관 김호균(☎ 044-201-1311, 1332)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	과장 조영신, 사무관 박종학(☎ 02-2110-4581, 4580)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황승현, 사무관 김혜인(☎ 02-2023-7870, 7872)
환경부	정책총괄과	과장 김승희, 사무관 정의석(☎ 044-201-6640, 6652)
고용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유진, 사무관 허윤선(☎ 02-2100-7111, 7129)
여성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서영학, 사무관 박문숙(☎ 02-2075-4561, 4567)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	과장 손옥주, 사무관 김동혁(☎ 044-201-3258, 3261)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엄기두, 사무관 오영록(☎ 044-200-5120, 5121)
국조실	과학기술미래정책과	과장 김규형, 사무관 심상완(☎ 044-200-2248, 2249)
방통위	기획총괄담당관	과장 박노익, 사무관 엄정환(☎ 02-2110-1320, 1383)
공정위	경쟁정책과	과장 민혜영, 조사관 박영중(☎ 044-200-4301, 4307)
금융위	신성장금융팀	팀장 안창국, 사무관 강성호(☎ 02-2156-9670, 9671)
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임윤주, 사무관 김지영(☎ 02-360-2640, 2646)
식약처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권오상, 주무관 안정하(☎ 043-719-1451, 1471)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이종우, 사무관 정기섭(☎ 042-481-7660, 7605)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백승보, 사무관 이창인(☎ 070-4056-7067, 7027)
방사청	정책조정담당관	과장 김원식, 소령 김준희(☎ 02-2079-6210, 6266)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유재욱, 사무관 김주섭(☎ 02-2100-5161, 5131)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오기표, 사무관 하경수(☎ 042-481-4050, 4051)
중기청	정책총괄과	과장 변태섭, 서기관 손후근(☎ 042-481-4537, 4540)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문삼섭, 서기관 정기현(☎ 042-481-5039, 5040)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과장 임용한, 사무관 김규일(☎ 02-2181-0851, 0850)